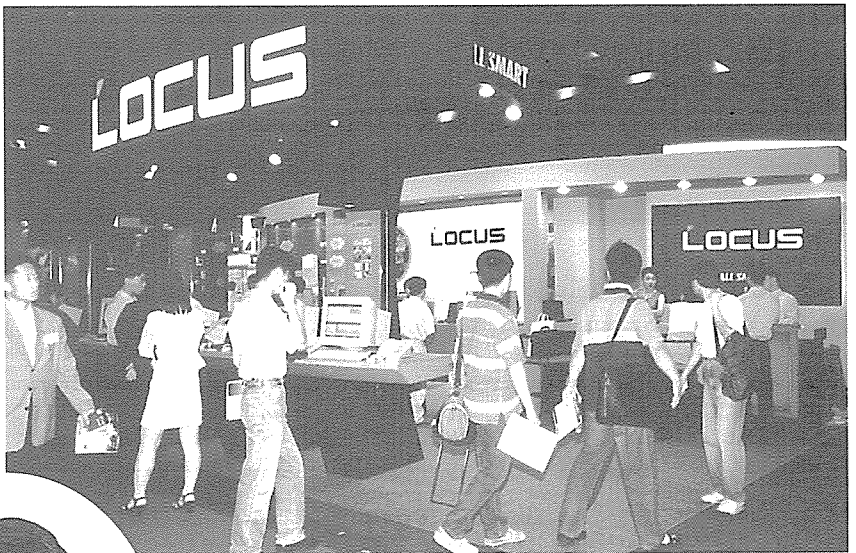


(주)로커스

전화에 컴퓨터 지능 부여 국내 최초 ... CTI서버 개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눈부신 발전은, 지구촌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점점 빠르게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정보통신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더불어 기술개발의 가속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기술개발 분야는 무엇보다 긴 시간 투자를 요구한다. 많은 정보통신 업체 중에서도 로커스(대표 김형순/사진)가 믿을만한 이유는,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자리잡은 로커스는 오늘도 '이제까지와 다른 새로운 통신 커뮤니케이션 세상'을 꿈꾼다. 김대표는 "단순한 정보통신 기술의 개발과 판매에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정보통신 문화의 소개와 정착을 위해 매진해 왔다"고 당당히 말한다.



CTI제품 시장점유율 1위

로커스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90년대 중반 국내 최초로 전화에 컴퓨터의 지능을 부여한 CTI(Computer Telephony Inte-

gration) 서버를 개발하면서부터이다. CTI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화, 팩스, 컴퓨터 등 다양한 종류의 통신 도구들을 통합한 로커스 콜센터는 지금까지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환기와 컴퓨터의 정보 교환을 통한 통합시스템, 영상회의 기능, 자료 전송과 음성 사서함 기능 등의 기술개발을 꾸준히 진행시켜, 다양화를 꾀한 노력의 산물이다.

한편 로커스는 CTI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CTI에 인터넷을 통합한 CITI,

그리고 CITI에 텔레비전·위성통신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세계로 통합하는 mCITTI(mobile Computer Internet Television Telephony Integration) 기술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개발해 온 제품에 대해, 사용자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여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통합 음성 메시징 시스템(UMS), 문자 서비스(SMS), 음성 다이얼링 서비스(VAD), 초고속 무선호출 시스템 등의 통신부가 서비스와 초고속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 개발과 함께, 10년동안 로커스

90년대 중반 국내 최초로 컴퓨터에 전화기능을 부여한 CTI서버를 개발한

(주)로커스는 새로운 정보통신문화의 소개와 정착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94년 사내에 정보통신연구소를 설립하여 6개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주)로커스는 CTI에 인터넷을 통합한 CITI 그리고 CITI에 텔레비전·위성통신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세계로 통합하는 mCITTI 기술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를 국내 최상의 정보통신업체로 성장시켜 온 비결로 탄력적인 조직운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로커스의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로커스 정보통신연구소. 1994년에 설립된 이 연구소는 매년 매출액 대비 11% 이상의 R&D 투자를 바탕으로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매진하는 곳이다. 현재 연구소 산하에 기술기획팀, 네트워크 관리연구팀, 네트워크 제어연구팀, 무선데이터팀, SS7팀, 인터넷 TV팀 등 6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단말기를 하나로 통합,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CITTI 기술의 완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지역분산번호 안내 시스템을 광역번호 안내시스템으로 통합한 시스템인 NACD와 통신 사업자용 대용량 VMS(Voice Messaging System)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VMS란 부재 중 혹은 통화 중 메시지 저장, 내용 검색 및 청취, 개인 사서함 이용 및 외부 전송된 팩스 정보를 사서함에 개별적으로 저장하거나 검색하는 부가 서비스 시스템(Value Added System)을 말한다. 로커스가 개발한 VMS는 통신사업자 등의 대형 사업자

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SMS(문자 서비스)와 VAD(음성 다이얼링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로커스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Lucent Technology, Dialogic Corporation 등 세계적인 통신업체 5개와 제휴를 맺고, 각 솔루션에 대한 공동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3년간 연평균 성장률 200%

로커스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또 하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다. 로커스는 전략경영본부, 재무본부, 관리본부 등 5개의 본부와 정보통신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본부와 연구소는 독립적으로 정책결정권과 운영권을 부여받은 팀이다. 팀체제를 강화해 각 팀이 자율적으로 경영전략·상품전략·기술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전략수행까지 자율성에 맡긴다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인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런 기술개발과 조직운영의 노력으로 로커스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0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대규

모 금융권의 폰뱅킹센터, 한국통신의 지능형 114 시스템, 한국통신프리텔, 하나로통신의 고객만족센터, 한솔엠닷컴의 음성사서함 시스템 등 2백여 국내의 대형금융·통신기업이 로커스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는 고객들이다.

앞으로는 우선 1단계로 지금 주 사업분야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인터넷, 미디어 영역으로 확장해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2단계로 영화, 음반, 스포츠, 게임, 교육 등의 종합엔터테인먼트 서비스사업에 참여해 디지털 콘텐츠 분야까지 아우른다는 계획이다.

로커스는 또 다른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 로커스와 형제회사인 Jardin Fleming Electra사와 함께 로커스 Embryo를 설립해 전 세계에 한국적 벤처경영능력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 벤처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김대표는 앞으로 "로커스를 세계 최고의 지능형 통신 SI(System Integration)기업이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롤 모델(Role Model)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⑤

장미라 <본지 객원기자>